

SUV 강세속 세단 분위기 반등할까... 신차 대거 출격

2019 자동차시장 전망

기아차 이달 풀체인지 '쏘울' 3세대 **쌍용차** 하반기 '8세대 신형쏘나타' **현대차** '초소형 SUV' 하반기 출시



기아차 쏘울 부스터 가솔린 1.6 터보

자동차업체들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벽두부터 신차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는 올해 다양한 차종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진했던 세단시장의 분위기 반등을 위해 현대차의 쏘나타 등의 인기 모델들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시장에서 양강구도를 확고히 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를 비롯해 아우디코리아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올해 신차 출시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기아차 신형 쏘

울과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 통보디 모델이 새해 신차 시장의 포문을 연다. 쌍용차는 오는 3일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칸'(Khan)이라는 별칭이 붙은 렉스턴 스포츠 통보디 모델을 최초로 공개한다.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의 전장과 휠 베이스를 늘린 모델로, 기존과 동일한 2.2L 디젤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2륜과 4륜 모델로 나눠서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내수 판매 4만대를 돌파한 렉스턴 스포츠의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월에는 코란도 C의 후속 모델 'C300'(프로젝트명)도 선보인다.

기아차 쏘울은 1월 중 5년 만에 완전변경(풀체인지)된 3세대 모델로 돌아온다. '부스터'(Booster)란 애칭이 붙은 신형 쏘울은 한층 강인하고 최첨단의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신하면서 상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과 전기차 모델(1분기 출시) 두 가지로 나온다.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동력성능을 갖춘 1.6 터보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를 탑재했으며 전기차 모델은 기존보다 두배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80% 이상 향상된 모터 출력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상반기 중 5년 만에 완전변경을 거친 '8세대 신형 쏘나타'를 출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달리 SUV 모델의 출시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특히 중·대형 SUV의 인기가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신형 소형 SUV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한국지엠 쉐보레 트래버스

대우조선·삼성중, 임단협 마무리

현대중, 노조 반발로 최종타결 연기

현대중공업이 노조 내부 반발로 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타결을 연기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삼성중공업과 함께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27일 12시간의 실무 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병행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28일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회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간사회의록 가운데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회사 측이 이 문구를 수정하지 않으면 대의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 찬반 투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노조에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임단협 최종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결과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투표에 참여해 50.8%인 2699명이 찬성의사를 밝혀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앞서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9월 일찌감치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전자 빨래시간 줄인 '트롬 플러스' 출시

LG전자가 빨래 시간을 획 줄인 신형 드럼세탁기를 내놨다. LG전자는 1일 '트롬 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트롬 플러스는 표준 모드 기준 세탁시간을 기존 모델보다 18% 줄였다. 전기는 30%, 물은 14% 적게 사용한다. '5방향 터보샷' 기술을 탑재한 덕분이다. 터보샷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손빨래 동작 6모션을 결합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190만원이다. 용량은 21kg, 색상은 모던스테인리스다.

/김재웅 기자 juk@



LG전자는 세탁 시간과 물·전기 사용량을 줄인 신형 드럼세탁기 '트롬 플러스'를 출시했다. /LG전자

전기차 배터리·투명 PI필름·자율주행 기술 등

'SK의 혁신' 미래 모빌리티 총집합

'CES 2019'에 공동부스

김준·박정호·이석희 사장 등 방문 글로벌 고객사와 미팅·협력 추진

SK 주요 관계사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19'에 참가, 새해부터 신성장동력 찾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SK의 주요경영진이 CES 2019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SK의 '미래 모빌리티' 공개

1일 SK에 따르면 SK 관계사들은 CES에서 처음으로 공동 부스를 마련해 'SK의 혁신적인 모빌리티'를 테마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전 세계 점유율 2위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LiBS(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를 전시한다. 또 폴더블폰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투명 PI 필름 'FCW'도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곳에 전시 부스를 차린다. SK 공동부스에서 단일광자 라이더(LiDAR), HD맵 업데이트 등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SM엔터테인먼트 공동부스에서는 홀로박스, 옥수수 소셜 VR 등 5G 실감 미디어의 근미래상을 공개한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 모빌리티'를 콘셉트로 자율주행, 첨단전자보조시스템(ADAS),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등에 필수적인 차량용 DRAM과 낸드 플래시를 전시한다.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주행 경험과 안정성 향상 등의 새로운 가치를



'CES2019' SK 공동부스 이미지.

/SK이노베이션

창출하며 메모리 반도체는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된다. 이에 맞춰 차량-데이터센터 간 통신과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DRAM, HBM(고대역폭메모리), 대기업용 SSD를 선보일 예정이다.

SKC는 자동차 케이블 경량화에 유리한 'PCT 필름', 자동차 유리 파손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리 접합 'PVB 필름' 등을 전시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무게를 줄여주는 방열소재 '그라파이트 시트', 전기차 내 전력반도체에 쓰이는 '탄화규소(SiC)', 친환경 폴리우레탄 내장재 등도 공개한다.

◆SK 수장들 한자리에

CES 2019에 참가하는 SK의 주요 경영진도 현장을 직접 찾는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과 임원들은 글로벌 고객사 대표들과 미팅 등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또 CES 기간 중 현지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담당 임원들과 전략회의를 개최해 비즈니스모델 혁신 방향을 검토하고 올해 사업전략의 토대를 마련한다.

동시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으로 주력인 '뉴 X5'(2월), '뉴 3시리즈'(3월)를 포함해 총 15종(미니 브랜드 포함)의 신차를 선보인다. 이 외에도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을 거친 전기차 'i3 120Ah'(1분기)와 대형 SUV '뉴 X7'(2분기), 뉴 7시리즈 부분변경(3분기), 뉴 X6 완전변경(4분기) 등이 잇달아 등판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뉴 A-클래스' 세단과 4-도어 스포츠카인 '더 뉴 AMG GT 4-도어 쿠페'를 선보인다. 오프로드 차량인 G-클래스의 신모델도 나온다.

아우디코리아는 대표 세단인 'A6'와 'A7'의 신형을 내놓는다. 새로 출시될 A6는 모든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출력이 향상됐다.

렉스스코리아는 상반기 중 UX를 출시해 국내 소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고성능 전기 SUV인 'I-페이스'를, 한국닛산은 중형 SUV '더 뉴 엑스트레일'을 각각 1월 중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